

칼럼



장기채 주필

은발(銀髮)의 현역이 더 행복하다

세계 최고 고령화 국가인 일본이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일하는 나이(생산 가능 연령)를 연장해 일손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막고 연금 지급 시기도 늦춰 국가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단안이라고 한다.

우리는 일본보다 고령화 수준이 아직은 낮고 하지만 속도는 분명 더 빠르다.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인간 생명의 연장으로 노인이 빠르게 늘고 있다. 이들에게는 일이 있어야 하고 건강도 필요하다. 노후생활을 풍요롭고 즐겁게 사는 것은 우리 모두의 희망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가 빠른데도 고령 친화산업의 진전은 더디게 발전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고용 없는 성장으로만 일관해 왔다. 청년 일자리 부족, 중장년층 조기 퇴직,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으로 인한

노인 일자리와 복지 문제들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사회로 진입했다.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의학의 발전은 '100세 시대'로의 세상을 진입시켰다.

2050년경 한국은 전체 소비자 3명 중 1명은 노인일 정도로 노인이 막강한 소비주체로 떠오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은 최근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이다.

국가 성장의 기반이 청년층에서 노년층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다.

꾸준한 고령자 시장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내 실버산업 수준은 국내 총생산(GDP)의 5.4%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를 경험한 독일, 일본에 비해 우리는 실버산업의 발걸음이 매우 느리다.

지금의 추세라면 노인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되는데 10년 밖에 안걸린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올해를 정점으로 급속히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 고

령화 속도는 일본보다 빨라 고령인구 비율은 2060년대에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고 한다. 어쨌든 한국은 노인들이 나이 먹어서까지 일을 많이 하는 이유는 노후 보장 체제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는 45세가 되면 정년 퇴직한다는 '사오정'이나 56세까지 회사에 남아있으면 도둑이라는 뜻의 '오륙도'는 일본의 경우와는 전혀 무관한 예다.

나이가 많은 전문가들은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나 모습만 봐도 어디에 이상이 생겼는지 금방 알아내기 때문에 기계산업이 발달한 일본에서는 매우 가치있는 노동력으로 인정받고 있다.

요즘은 학교를 졸업하고 독립할 나이인데도 취업을 못한 자식의 생계까지 책임지느라 퇴직 후 이런저런 일자리를 전전하는 중산층 노인도 많다.

그러나 일하는 노인의 증가는 평균 수명 80세 시대로 접어든 고령화 사

회의 필연적인 추세다.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빨라 불과 10년 후인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노후-노년은 아무도 피하지 못하는 모두의 절실한 현실이다. 이제 일하는 노인의 증가는 평균 수명 80세 시대로 접어든 고령화 사회의 필연적인 추세다. 지금부터라도 풍부한 직업 경력과 인생 경험을 터득한 노인들이 생산적 활동을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청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어울려 일하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년층의 고용을 막는 장벽이 없어져야 한다.

고령자의 재취업은 삶의 의미문제, 사회활동의 축진, 노년기의 소득 보장이라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의미를 부여한다. 지금 이 나라의 고령자(65세~79세)의 42.7%가 일자리를 원하고 있다. 노인들이 손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고용정보 시스템부터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늘어나는 기대수명 등을 반영해 우리나라도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빠른 고령화에 따른 경제·사회적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발의 현역'이 더 행복한 이유일 것이다. 노후는 먼미래의 이야기기가 아니다.

사설

추석연휴 기간 이동 자제하자

3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연휴가 코로나19의 항배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연휴나, 여름휴가처럼, 그리고 광복절 연휴처럼 코로나19가 번질 고비가 추석일 수 있음을 잊으면 안 된다.

감염경로를 모르는 환자가 20%를 웃도는 상황에서 민족 대이동은 바이러스를 방방곡곡 확산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석 연휴기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 마련에 나섰다. 윤태호 중앙상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5월 연휴와 8월 여름휴가 이후 확진자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추석 전까지 신규 확진자 수를 최대한 안정시키고, 이후 연휴 기간에 감염이 증가하지 않도록 기본적 원칙을 두고 추석 방역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부터 추석과 별초, 성묘 등 민족 대이동으로 인한 확진자 증가를 우려해 '전 국민 이동 별초 및 추석 명절 모임을 금지해달라', '추석 명절 기간 록다운(lockdown:외출안하고 집에 머물러 있음)과 장거리 이동제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다.

되도록 이동을 삼가고 접촉을 줄이는 등 방역협력이 발휘될 때다.

보고 싶어도 조금만 참는 '특별한 추석'이 됐으면 한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하루 빨리 종식됐으면 한다.

다행히 코로나19 전국 확진자가 옛새해 1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광화문집회 이후 한때 하루 441명까지 치솟은 것을 감안하면, 기세가 한풀 꺾인 모습이다.

매일 매일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 숫자에 마음 졸이는 생활에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방역당국은 "시민들이 협조하고 인내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아직 긴장을 늦출 때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런데도 일부 보수단체들은 개천절(10월 3일) 대규모 도심 집회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마치 으름장을 놓고 있는 듯한 모양새다. 앞서 서울 광화문 등에서 벌어진 광복절 집회 관련 확진자가 527명까지 늘어난 것을 간과한 게 아니냐는 생각마저 든다. 집회·시위를 통한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 건강이 우선이다. 집단 이익에 매몰된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 수 없어 자제하길 바란다. 방역의 고삐를 늦춰서는 절대 안된다.

독자투고 E-mail: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탈북민에게 생소한 신조어...소통 장애만 부추겨
행복한 삶을 간절히 소망해 목숨을 걸고 남쪽으로 건너와 정착한 북한이탈주민 3만 6천여명 시대가 도래하였다.
우리는 북에서 남으로 넘어와 정착한 사람들을 '북한이탈주민' '탈북민'이라 부른다.
사랑하는 가족과 정든 고향을 두고 따뜻한 남쪽나라를 찾아온 그들이지만 모든 것이 낯설다보니 한국 사회에 상당기간 적응을 쉽게 못해 범죄피해를 당하거나 의사소통에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다.
요즘 우리 주변 젊은 세대에서 대화중 흔히 하는말 들은 맨붕,극혐 등 셀수없이 많은 신조어를 사용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탈북민들은 발음,어양 등이 남한과 다른측면이 많

Table with 2 columns: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Lists various emergency and service numbers.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광역시동구남문로 753번길 7
회장·발행인·편집인 김평호 편집국장직무대리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장평 13길 19 (061) 727-3123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